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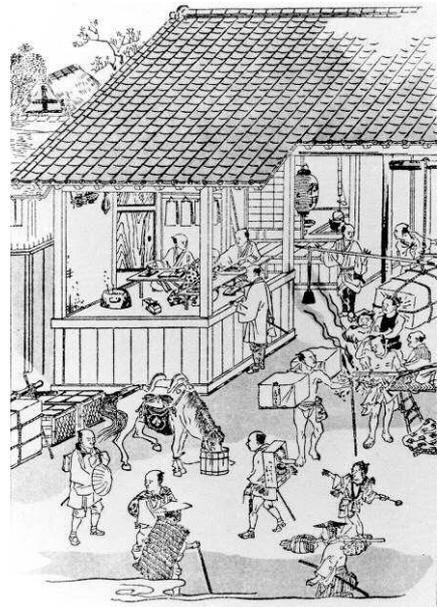
●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시나가와 역참마을의 시가지 모형

가게 안을 들여다 보세요

16세기 중엽의 시나가와 연안부에는 메구로가와 강을 경계로 하여 미나미시나가와 역참과 기타시나가와 역참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1601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와 교토·오사카 방면을 잇는 도카이도 가도를 정비했습니다. 시나가와는 도카이도 가도의 첫 번째 역참마을로 지정되어, 1722년에 기타시나가와 역참의 북쪽에 보행 역참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시나가와 역참마을의 시가지는 도로 폭이 약 5~7m였으며, 남북으로 약 2,143m 이어져 있었습니다.

전시되어 있는 시나가와 역참마을의 시가지 모형은 1845년경의 평면도와 우키요에(풍속화), 당시 서책의 삽화를 토대로 하여, 메구로가와 강을 중심으로 한 약 500m를 재현한 것입니다. 기와지붕 건물이 많으며, 여인숙과 음식점이 많은 것이



▲도이야바(출처: 『교통의 역사』)

특징입니다. 가게 안은 업종에 맞춰서 한 집 한 집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은 모형이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찬찬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랫쪽에는 각 상점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도이야바(問屋場)

짐이나 여행객을 운반하는 것은 역참의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짐 등의 운반은 각 역참을 릴레이 방식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운송 요금은 공무상의 여행이면 무료 또는 시세보다 싼 가격이었으나, 일반 여행객은 운반인과 금액을 흥정하여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역참마을의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 도이야바입니다. 관리로서 도이야(역참의 장), 도시요리(보좌역), 조즈케(서기), 말에게 짐을 배분하는 우마사시, 인부에게 짐을 배분하는 닌소쿠사시가 있었습니다. 시나가와 역참의 도이야바는, 처음에는 미나미시나가와 역참마을 3초메 동쪽의 북쪽 모퉁이(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미나미시나가와 2초메 13번 부근) 및 기타시나가와 역참마을 1초메 서쪽(지금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 2초메 30번 부근), 이 두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823년의 대화재로 두 곳 모두 소실된 후에는 역참은 미나미시나가와 한 곳에만 있었습니다. 또한 1712년에 짐이 정해진 중량을 넘지 않는지 검사하는 중량계량소가 도이야바와 같은 건물 안에 설치되었습니다.



▲혼진(本陣) 부근



▲도이야바, 중량 계량소

